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2. 4(화) 15:1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팀장님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8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2차 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는 기타 안건 1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수신료 조정(안) 검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 청취

○ 이경재 위원장

- <기타사항 가> ‘수신료 조정(안) 검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KBS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3년 12월 12일 KBS 수신료 조정(안)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에 수신료 조정(안)의 주요 내용과 처리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곧바로 방송·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한편 KBS 측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는 EBS 측으로부터도 수신료 조정(안)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1월 15일에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수신료 조정(안) 관련해서 상임위원들 간에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 대해서는 이후 조만간에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관계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 맞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서재석 TV본부장 맞습니까?
- 서재석 KBS TV본부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이종욱 기술본부장 맞습니까?
- 이종욱 KBS 기술본부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권순범 정책기획본부장 맞습니까?
- 권순범 KBS 정책기획본부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서강원 미래미디어센터장 맞습니까?
- 서강원 KBS 미래미디어센터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맞습니까?
-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정구봉 예산주간 맞습니까?
- 정구봉 KBS 예산주간
 -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길환영

KBS 사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KBS 측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의견청취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KBS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자리이며, 수신료 조정(안)의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사장님도 국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명확하게,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길환영 사장께서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KBS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환영 KBS 사장**

- 먼저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현실화(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인 재원구조 위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하고 나아가 고품격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제시에 앞서서 수신료 현실화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서 격화된 매체경쟁 속에서 방송 제작비는 급상승하고 있고,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요구되는 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요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지원 없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투입된 7,500억 원의 자금은 대규모 차입금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1981년 이후 동결된 데다가 광고는 매체 증가와 경쟁 심화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3의 수입원 확대와 경영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구조가 고착화되어서 수신료 현실화 없이는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광고의존도를 줄여서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한 광고의존도 확대로 주재원인 수신료보다 보조재원인 광고의 비중이 오히려 높은 역전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청률과 광고수입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는 상업매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공영방송다운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영성과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공영적인 재원구조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셋째, 디지털 스마트 시대, 공적책무에 충실한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콘텐츠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높아진 시청자 욕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경제적·기술적 약자들의 디지털 정보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는 일에도 앞장 서야 합니다. 재난·재해 위험이 급증하는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국가 기간방송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 UHD-TV 등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안정을 기반으로 상업주의 범람 속에서 방송 청정지대로서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고품질·고품격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글로벌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세계 속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 또 영국의 BBC와 어깨를 견주는 최고의 공영방송을 만

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몇 가지 후렴처럼 되풀이되어 온 것들이 첫째 공정 보도와 공영성을 강화하는 문제, 둘째 KBS의 지배구조를 정권의 것으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국민의 것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셋째는 광고와 수신료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회계를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 아니냐, 넷째로 경영개선과 KBS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과연 국민에게 손을 내밀 만큼의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지상파 재허가 때도 본 위원이 되풀이해서 묻고 또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외부 자문위원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또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3년도 지상파의 광고실적이 전년 대비 대략 어느 정도나 순감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 김환영 KBS 사장

- 2013년 지상파 광고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KBS의 경우에 6,241억 원을 예상 목표로 했는데 500억 원 이상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4%가 후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KBS의 광고감소 추세를 예상해 놓은 것을 보면 5년 평균적으로 합산하더라도 거의 1,500~1,600억 원이 차질이 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계수상의 차이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요? 전체적으로 지상파의 광고감소 내지 매출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볼 때 지금 KBS가 제시한 수치들은 현실에 빗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환영 KBS 사장

- 물론 앞으로의 5년을 예측한다는 것이 정확성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시한 그 수치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 저희의 의지, 목표를 수치화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100억 원 정도가 매년 미(未)집행 된다고 볼 때 그 미집행의 방식도 현실적으로는 6개월 물량, 3개월 물량, 1개월 물량 이렇게 광고가 계약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광고 담당자가 답변하실겁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우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5년 평균 매년 2,100억 원 광고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그 광고가 축소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광고공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대로 봐서 어린이·청소년 시간대나 또는 주시청시간대를 피한 이런 부분에서 광고를 축소함으로써 광고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시간대를 먼저 저희가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광고를 담당하는 KOBACO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1년 평균 2,100억 원이라는 것이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KOBACO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은 차년도의 광고시장을 조정한다고 할 때 차년도 광고시장이 유동적일 것이 뻔한데 KBS의 실정만을 기준으로 KOBACO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지만 저희의 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안은 KOBACO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 타깃 시간대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채널별로, 또 라디오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의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그 2,100억 원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실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광고 폐지 등의 완전한 공영적 재원구조 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통해서 2019년은 완전한 공영방송 구축의 원년이 되는 희망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KBS 구성원 전체의 합의된 의사가 2019년 이후에는 광고 없는 KBS로 맞춰져 있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 부분은 KBS의 정책적인 경영방침 이런 목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의 합의는 그 후에 그것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구성원들 전체의 합의 그 이전에 무릇 공영방송이라고 할 경우에 사실은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방송법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듯이 주재원을 수신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보조재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BBC와 NHK의 경우에 광고는 전혀 하지 않고 수신료만으로 또는 수신료와 기타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이상 방송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작도 하고 또 실무 차원의 편성책임도 맡아서, 또 경영도 해 본 결과 광고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대단히 훼손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고 없이 완전공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또 완전공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2017년경부터는 광고축소에 대한 광고 제로를 겨냥한 세부계획도 나올 수 있겠네요?

○ 김환영 KBS 사장

- 그 부분은 수신료 현실화가 방통위를 지나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승인이 될 경우에 그 직후부터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광고를 완전히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공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화된 토대 위에서 완전공영방송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제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자문위원님 중에 말씀을 물으시겠습니까? 김경환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사회는 위원장이 하는 것인데 ... 다른 위원님들부터 질문하시고...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데 제가 같이 관여하면서 쪽 데이터들을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KBS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난 33년 동안 묶여 있었던 수신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공영방송이 바람직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KBS가 내세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나 수치를 놓고 볼 때에는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점도 있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KBS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 드리면 KBS가 재정 전망을 5년 치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현재대로 가면 현재의 수신료, 현재의 광고감소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면 앞으로 KBS의 재정적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줄어들기 어렵다고 숫자를 주셨습니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4,70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약간의 전제조건이 저희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수를 달리해서 수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추계를 다시 산출해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여전히 적자 구조를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비록 그 적자 규모가 4,700억 원 만큼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대로 가면 KBS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에서 저희가 일부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KBS가 추계해 오신 것에 보면 모든 경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5% 절감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해당 안 됩니

까?. 인건비는 그대로 승급분이나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궁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왜 다른 경비들은 다 5%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만을 그렇게 못 하시나 하는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2010년에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물론 결과적으로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2014년까지 4,200명 수준으로 KBS 인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언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인규 사장께서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때만큼의 그런 비장한 결의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항간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KBS의 인건비 구조가 높다라든지, 인력구조가 비대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연결을 시키면 인건비를 전혀 손대지 않고 나머지 다른 경비들을, 소위 공적책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거창하게 가지고 옴으로써 이것이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인건비는 절감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물론 KBS가 제시하신 절감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5년간 1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기존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환영 KBS 사장**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금 문제는 사실은 일반경비 같이 일률적인 삭감계획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사합의 또는 노동관계법 등의 절차 등에 따라서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전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물가상승률이 3% 정도, 그다음에 승호승급분 2% 해서 5%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계상하지 않으면 저희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임금인상을 1.18% 했는데 0점 몇 퍼센트 가지고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타 방송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과 2, 3년 전에도 임금문제로 해서 상당히 타사로 스카우트 전직, 이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임금 또 임금인상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양질의 인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경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수신료 현실화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정년연장이 2년 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임금피크제, 이 부분을 동원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최대한 그 임금 부분에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애로사항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노사문제가 있고 또 다른 방송사와의 비교관계 때문에 그러시다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 말에 공기업의 방만한 구조, 그리고 부채 관계 때문에 공기업 관계자들 긴급회의가 열려서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KBS와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긴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거기도 노사문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든지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재무구조가 나빠진 그런 공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들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은 이렇

게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방향을 모아서 가고 있습니다. KBS라고 해서 노사관계 때문에 거기에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라든지 국감장에서도 KBS 인건비 비중을 낮춰라라는 것이 수차례 지적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2012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비중이 32.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저희가 인건비 절감 없이 그냥 KBS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봤을 때는 '18년도에 가면 35%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시 상응한 정도의 KBS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항간에 KBS의 연봉이 높다고 해서 신문자료에도 보도가 되고 또 KBS가 해명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황 공표 자료집,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그 자료집을 가지고 단순하게 인원과 인건비를 나눠 보면 KBS가 꼭 그렇게 적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통계방법이 다르고 포함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이렇다는 것을 뚝뚝이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1급~7급까지 분포되어 있는 인력구조가 중간 상위직급이 비대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상적인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영 KBS 사장

- 우선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노사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년연장과 연계한 피크호봉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준, 그것보다도 좀 더 선도적으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인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5, 6년 신입사원들을 필요한 만큼 많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호봉자들은 더 늘어나고 밑에는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는데, 이 부분은 KBS가 사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사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우선순위에 이 문제해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피라미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위에 있는 고호봉자들, 고직급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문제를 굉장히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의 하나로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대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만 57%, 이 부분은 현재 2직급 을부터 관리직급까지 직원 전체가 57%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실제 그 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자는 전체 35%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은 방송사의 임금은 공기업, 공공기관 타 직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단히 창의적인 작업, 그런 업무를 요구하는 방송사의 경우에 타 방송사들과

비교할 때 저희는 평균 87%, 88%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방송사 간에 이런 경쟁체제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작 방송하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타 직종과의 임금차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사장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 임금자료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는 여전히 추산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기회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위사의 노사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인건비를 줄여라' 이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사장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미 MBC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일찍 시작했는데 KBS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해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과 '인건비를 줄여라'라고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전체적인 구조조정, 아직도 창가족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기 책상 닦았다가 퇴근할 때 또 닦는 이런 역대 청소부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퇴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퇴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신입사원들을 더 많이 확충하고 활기를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지, 인건비 자체를 가지고 월가월부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국회에서 오버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부의 과잉개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사장에게 질문해 봅시다. 정치권력이 공정성에 더 해롭습니까, 자본권력이 공정성에 더 해롭습니까?

○ 김환영 KBS 사장

- 그것은 어느 쪽이 더 해롭다를 따지기보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 2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광고 이야기, 첫 번째 우리 준비물의 <1>번이 광고입니다. 광고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자본권력보다 정치권력이 훨씬 더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대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불공정방송, 편파보도라는 논쟁들을 불러 일으켜 왔지, 자본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1이면 정치권력은 9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정치권력의 개입들을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하는

데 광고 문제는 전형적인 자본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일찍이 수출해야 하는 방송정책 중의 하나가 미디어랩 제도라고 이야기해 왔었는데, 자본권력이 보도의 공정성, 제작의 자율성에 대해서 훼손시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여과장치, 견제장치가 미디어랩이다, 미디어랩이라는 좋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하게 광고주들이 광고국장이나 보도국장이나 사장에게 끊임없이 전화질을 해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나마 제도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제도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디어랩 이상 없다, 그러면 광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수신료 산정 과정에 있어서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본부장, 국장 직선제 이야기했다가 임명동의제 이야기했다가 평가제 이야기하면서 논의들이 풍성하고 많았습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KBS에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는데 그러면 좀 더 냉정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와 야당 후보를 지지했던 49%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49%의 국민들은 수신료 이야기를 하면 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KBS 입장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2,100억 원을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도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500원의 수신료를 인상하면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KBS가 1,000억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1,500원 인상을 이야기해 놓고 2,100억 원을 빼겠다고 하면 이 지표만 딱 가지고 KBS가 달랑 500원 가져갈 싸움을 1,500원을 불러 놓고 지금 치열하게 온몸으로 KBS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원은 누가 가져갑니까? 1,500원 인상 싸움을 하는데 연간 2,100억 원의 광고를 축소하겠다고 하면 KBS에게 남는 돈은 500원 인상효과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0원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왜 국민들에게 KBS가 남의 회사 먹여 살리려고 1,500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500원 인상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500원 인상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500원을 인상했는데 그동안 KBS가 약속했던 수많은 공적책무, 그것 500원 가지고 하려면 턱도 없습니다. 500원 인상시켜 놓고 5,000원 비용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광고축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왜 2,500원 내다가 4,000원을 냈는데, 제가 KBS로 받는 서비스나 퀄리티는 똑같고 오히려 못 하고 돈만 더 많이 내야 합니까? 사장님, 사장님이 연필 2,500원짜리 쓰다가 4,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훨씬 더 질 좋은 연필 쓰려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신료 인상에 주면 오히려 KBS가 방송프로그램 퀄리티 외에 공적책무가 수두룩 뺏겨 있는데 거기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하고 또 엉뚱하게 1,000원은 다른 회사 먹여 살리려고 광고 빼버리고, 국민들이 내고 싶겠습니까?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김환영 KBS 사장

- 제가 말씀 드릴까요? 수신료 현실화, 수신료 인상을 하면서 저희가 먼저 광고 부분을 이렇게 줄이겠다고, 이것을 먼저 정한 것이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누가 정한 것입니까?

○ 김환영 KBS 사장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료 비중을 지금 37%인 것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주재원으로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하는 이 2가지를 전제해 놓고서,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이런 공적책무를 위한 여러 가지 처음에는 60여 가지 정도 이런 공적책무를 놓고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00원이 나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신료 53%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평균 2,100억 원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겠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재원을 수신료로 잡고 37%에서 50%로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때문에, 이 상징성 때문에 지금 광고를 낮춰서 주재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가 주재원이 37%는 안 되고 50%는 된다고 어떤 학자가 어떤 나라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회적 압력을 가한답니까?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주 특이한 계산법이지요. 한국은 일찍이 공영방송을 시작하면서 광고와 수신료의 비중을 통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유지해 온 황금비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재원이 수신료여야 하고, 수신료가 37%가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50%로 올린다는 이러한 설정 자체가 저는 전형적인 미신이고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최소의 원칙을 이야기하려면 1,500원이 아니고 KBS가 2,100억 원을 감내할 수 있으면 500원만 인상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원을 던져 놓고 2,100억 원의 광고를 빼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2,100억 원은 누가 가져가는데? 우리가 KBS에게 줬더니 KBS가 자진해서 2,100억 원을 버리네. 그러면 그 버린 돈 2,100억 원은 누가 가져가는데?'라는 질문이 당장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MBC가 가져가고 SBS가 가져가고 종합채널이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갑니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민영방송까지 세금을 내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라고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 김환영 KBS 사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광고 축소된 부분이 다른 종편이라든지..., 지난번 2010년 인상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양문석 상임위원

- 아닙니다.

○ 김환영 KBS 사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광고가 어디에 쓰일지, 2,100억원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종편 특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이야기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2,100억원이라는 돈은 국민의 돈입니다. 기존의 KBS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KBS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수신료 현실화의 핵심이 됩니까? 프로그램 퀄리티 높이는 것….

○ **길환영 KBS 사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공적책무 확대하는 것, 그것 하라고 지금 1,500원이든 2,500원이든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돈을 가지고 KBS 경영진이 함부로 2,100억원의 광고를 빼겠다, 플러스알파라고 KBS 힘들다고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광고축소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사기행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광고축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국민들은 현재의 KBS에 플러스알파로 훨씬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신료를 인상하라고 국가에서 한다면 그때 그 이유로 하는 것이지, 다른 방송사나 다른 민영언론사 먹여 살리라고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거나 인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길환영 KBS 사장**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광고비중이라는 것은, 제가 제작도 수십 년 했습니다, 한 20년 넘게. 또 편성책임도 맡아서 큰 개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광고비중이 많을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편성, 그리고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인드 자체가 이미 시청률을 머릿속에 상정하고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도 박사과정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학계에서도 60% 이상이 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시청률을 당연히 제작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보지 않는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읽지 않는 신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청률을 생각한다는 것이 타사와의 경쟁, 치열한 광고를 뺏어오기 위한 그 경쟁에서의 시청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 **양문석 상임위원**

- 사장께서 시청률의 의미를 PD나 기자들을 지나치게 저는 폄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PD나….

○ **길환영 KBS 사장**

- 아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 양문석 상임위원

- 광고….

○ 김환영 KBS 사장

-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작자로서 또 편성책임자, 편성 실무자로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방송에 종사하면서 느껴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철학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완전히 수신료로 재원을 확보한다면 KBS PD들이 시청률에 대해서 신경 안 쓸까요?

○ 김환영 KBS 사장

- 시청률 신경 써야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당연히 신경 쓸 것이지요? 쓸 수밖에 없어요.

○ 김환영 KBS 사장

- 제대로 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시청률을 신경 써야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도 이야기 좀 하게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경쟁….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이야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합시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정도 합시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경쟁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쟁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한국의 콘텐츠 질은 높아져 왔고, 그렇지요? 이 부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한류의 원동력들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콘텐츠 수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3사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가지고 왔던 힘 아닙니까? 즉, 경쟁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발언이나 광고 자체에 대해서 불온시하는 시각이나 아주 위험한 접근방식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18년까지 이 정도 빼고 그 다음에 '19년에는 청정방송이라고 하는데, 저는 청정방송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정방송이 광고 없으면 청정방송이고, 광고 있으면 불온방송이고, 오염방송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의 정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 **길환영 KBS 사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광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학에서 그다음에 수많은 학자들이 광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 자체를 계속해서 불온시하거나 오염 덩어리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광고 문제를 정리하면서 광고 없으면..., 지금 지난 10년 동안 KBS가 연간 400억원 정도의 비용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6,000억원대가 넘어섰고, 그리고 2019년 되면 2조원대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조원대가 넘어가면 아까 사장께서도 기초발제하실 때 이것 수신료로 다 가면 국민들이 지금 2,500원 내다가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을 KBS가 견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다 떠넘기고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은 지금으로부터 4배 이상 늘어나고, 또한 국민들은 4배 이상 늘어났는데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해지거나 못해지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입니까? 그리고 자꾸 2018년 이후나 2019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합의 안 됩니다. 아니, 2,500원 내다가 지금 10,000원 내라는데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차라리 중간광고 하나 해라, 그래서 KBS가 스스로 돈 벌어서 하라 해라' 그러지, 저는 누가 어떻게 KBS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빼고 그리고 그 부담을 국민한테 지우고 그 부담액의 70% 이상을 KBS가 안 쓰고 다른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KBS가 엄청나게 잘 못하고 있다, 보도의 공정성이나 제작의 자율성에 1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의가 뒤틀리면서 얼토당토않은 수신료 논쟁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얼토당토않게 국민들에게 과다 부담 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들이 곳곳에 묻어있다, 더더욱 수신료 인상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장님이 '90년대에 파리 특파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예, '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기간쯤에 프랑스 공영방송의 광고비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이야기해 보십시오.

○ **길환영 KBS 사장**

- 광고비중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때 광고 비중이 55%가 수신료이고, 45% 정도가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광고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길환영 KBS 사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다가 요즘은 없애는 것에 대한 반대도 조금 있고 또 저항도 있어서 요즘은 광고비중이 거의 10% 이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저는 양 위원님 말씀도 이것은 주장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인데, 그래서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공영방송을 지향하는데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좋은 프로그램 내고 공정한 방송을 내는 것이 맞겠지만 어쨌든 광고를 최소화하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고 싶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KBS가 '80년대 2,500원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광고 비중과 수신료 비중이 50:50정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중을 알고 계십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50:50 비중으로 있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60:40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70:30으로 변하고 있다는 추이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들 중에 광고전문가 없습니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윤준호 단장, 못 합니까?

○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 KBS 수신료가 2,500원이 되면서 그리고 흑백TV가 컬러TV가 되면서 광고 부분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수신료와 광고가 계속적으로 벌어져서 광고가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40:37로 수신료가 37로 역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40:37, 50:37 아닙니까?

○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 왜냐하면 기타수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기타수입을 빼고 기타수입을 따로 놓고 보면 큰 추이가 계속 수신료가 정채된, 30년째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광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사장님!

○ **길환영 KBS 사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쯤 더 가면 광고가 60%, 70%, 그다음에 수신료가 30%, 이런 비중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길환영 KBS 사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 비중이 그렇게 늘어왔는데 지상파 광고가 상당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광고시장이 정채하니까 그렇고,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광고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고 정채된 상태라면 제작비가 오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정보니까 광고를 죄악시킬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광고를 없애는데 큰 흑막이나 아니면 무슨 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철학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방송철학에 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길환영 KBS 사장**

- 저는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통해서 국민의 화합,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의 고품질, 고품격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광고가 나쁘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고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촉발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이라는 것이 갖는 두 얼굴, 빛과 그림자지요. 경쟁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한류를 확산시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주 짙은 그림자 같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경쟁만을 위한 막장 쪽으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애당초 광고에서 공영방송에서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광고를 하지 않고도 제대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형성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가지 공영방송의 철학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8월까지의 기준인데 2TV의 오락 편성이 48%이고, MBC가 46% 되고, SBS가 45% 정도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수신료 인상이 되고 광고가 조정이 되면 공영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2TV의 정체성 확보하려는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길환영 KBS 사장**

- 있습니다. 2TV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오락을 통한 국민들의 정서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TV에 만일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스펀지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공영성과 오락성을 겸한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주말연속극 요즘에 <왕가네식구>들이 방송되고 있지만 역대로 2TV의 주말연속극은 흠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3대가 나오는,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막장이 없으면서도 시청률이 40~50%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가진, 2TV가 공영성을 전제로 할 때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 텐데 방송에서의 공정성을 늘 토론의 대상이 되고 또 고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의 BBC도, 늘 이야기하는 BBC도 늘 공정성 시비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의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저는 균형성을 강조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KBS도 보도 공정성 또는 프로그램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 KBS 스스로도 그것을 좀 더 공정하게 가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장으로서의 각오나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길환영 KBS 사장**

- 그동안 KBS는 여러 가지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법에 근거한 편성규약, 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사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해서는 공정방송위원회를 벌써 한 25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성평가위원회, 또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진 대선공정방송위원회, 그리고 뉴스 옴부즈맨, 그리고 본부장 신임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근거해서는 국장 상향평가제, 이런 7~8가지의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몇 년 동안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에서 언론사 신뢰도평가에서 KBS가 여러 부문에 걸쳐 줄곧 수위를 차지해 온 바가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자문위원님들 질문부터 듣기로 하지요. 차례대로 질문하십시오.

○ 김경환 자문단

- 내신 보고서 저희가 검토를 쪽 했는데, 근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공적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한편에서는 수신료가 올라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콘텐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5년간 1,868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리려고 한다, 그런 부분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신료도 올라가지만 한편에서는 개별적으로 VOD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KBS의 부담을 더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광고를 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신료도 올라가고 KBS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공적책무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BS가 낸 안들을 검토해 보면 거기는 명확하게 시청자들이 입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령 유료로 제공되던 VOD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는지, 그래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수신료가 올라가는 대가로 거기에 따른 부가서비스의 부담을 지어왔던 유료화의 부분을 무료화하겠다는, 이런 명확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KBS는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콘텐츠 부가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수신료에 대한 입장의 견해차가 있는데, 저는 광고가 많아야 한다, 적어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수신료를 국민들이 내는 것은 KBS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KBS는 대표적으로 신탁을 받아서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KBS가 EBS에게 뭔가 절끔 나눠준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내신 안에 보면 한전 위탁수수료가 6.1 몇 퍼센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4,000원이 되면 3.84%로 줄이겠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EBS에 3% 지원하던 것을 5% 정도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상당히 EBS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구나'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행 2,500원일 때는 6.15%가 3%니까 9.15%가 수신료에서 빠집니다. 위탁수수료 내지 EBS에 지불되는 비중이 9.15%인데 4,000원으로 인상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한전 위탁수수료는 3.84%, EBS는 5% 합하면 수신료에서 빠지는 비율이 8.84%, KBS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인 역할, 그다음에 수신료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면 동등하게 EBS에 대한 수신료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KBS가 더 가져가는 비중으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그 주장에 이런 반론을 하실 것입니다. 한전 위탁수수료를 줄였다, 그것들이 KBS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지요. 위탁수수료가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만큼 수신료의 비율을 좀 덜 올리거나 또는 이런 EBS에게 더 주는 이런 식의 계산법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KBS가 0점 몇 퍼센트라도 더 가져가는 식의 계산법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향적으로 그 비율만큼이라도 조정, 또는 EBS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검토자료에 아주 방대한, 가령 유희자산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19만 건이다' 이렇게 주시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 삼성동에 있는 한전 사옥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KBS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별관, 그다음에 수원, 연구동, 기술동이라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저희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팔리지도 않는 몇 천평, 그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몇 십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들은 대규모 그다음에 놓고 있는 자산들을 좀 더 매각한다든지 효율화 또는 유용하게 활용하는 활용도 제고를 통해 좀 더 경영적인 측면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KBS는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체적인 내용들 공적책무에 있어서도 가장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제작비가 지금은 6,000만원인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8,000만원으로 만들겠다, 곱하기 102, 얼마 몇 십억, 추가 몇 백억, UHD 하나까 몇 백억 투자해서 콘텐츠 만들겠다,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쪽 해 왔는데 알 수가 없지요. 더 들이겠다면 드는 것이고, 또 적게 들겠다면 적게 드는 것인데 이런 식의 계산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주는 것이 수신료 인상이 이번에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만 추가 인상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환영 KBS 사장

-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사업수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청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BBC의 예산을 보면 4분의 3이 수신료이고, 4분의 1이 기타수입, 즉 주로 대부분 콘텐츠 판매수입입니다. 그것은 해외 VOD, 채널사업, 그리고 국내외 콘텐츠 사업수익으로 결국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하고 또 그것을 2차, 3차 이용을 위해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 유료채널 쪽에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유료사업자들에게는 콘텐츠 제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경영하기 위한 그런 재정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서 지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5%, 한 4분의 1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청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그 부분이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EBS에 대한 지원 부분은 분명히 EBS의 공적책무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 수신료를 같이 나누어서 분배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하신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실무선에서 한 번 검토해 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희자산을 말씀하셨는데 별관, 또 수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유희자산이 아니고 방송제작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저희 본관이 지어진 것이 1976년입니다. 38년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본관 건물은 흑백 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컬러 시대,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도 Ultra-High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만일 여력이 있다면 제대로 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옥을 지어야 하는, 절실합니다. 이것이 아주 사무공간이 터져 나갈 정도가 되어서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본관, 신관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몇 개 층이라도 임대해서 사용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사무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별관은 그대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공간이 넓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분명히 대부분의 드라마를 위한 제작기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력이 된다면 별관이나 연구동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검토를 미리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희자산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희자산이라면 지금 폐지가 된 중파 송신탑을 위한 그런 부지가 전국에 몇 천평 짜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정일 자문단

-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보면 KBS가 방송법 제44조가 지정하고 있는 공사의 공적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10대 약속, 60개 사업이라고 하는 분류를 통해서 공적책무 확대계획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약 6,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살펴보면 사실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현재의 재정 형편에서는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지만 또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계분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KBS의 조직체계라든지 아니면 회계관리체계가 회계분리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서 적어도 수신료의 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채널이나 아니면 재원별 회계분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회계사들 포함해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김환영 KBS 사장

- 수신료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그것은 수신료를 내주시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광고수입 부분과 수신료 수입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여러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해 하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갈라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원의 판결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지금 자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계신 상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회의하면서 임원들한테 수신료 회계분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알아보자, 그래서 과거의 판례 이런 것 가지고서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것 같고, 정말 확실한 여러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한 번 밝혀 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신료 회계분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하고, 또 안 된다면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은 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 주시는 위원님들이나 자문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가서도 이 문제가 나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확실하게 결과를 가지고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또 다른 자문위원님!

○ 김대길 자문단

- 앞서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저도 회계분리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계분리 관련해서 대부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경영상의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전문가들 통해서 자문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일반적으로 회계분리라는 것은 그런 투명성 측면도 있지만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만약에 KBS에서 현재로는 알 수 없는 비효율이 있다면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 회계단위를 세분화해서 그런 여러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자문해서 검토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꼭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길환영 KBS 사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자문위원님들 질문하셨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피하시고 다른 이야기들로 문답을 10분 이내로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김충식 부위원장님!

○ 김충식 부위원장

- 역시 회계분리 부분인데 마침 KBS 쪽에서 1월 22일 의견서에 상당히 그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도입 방안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KBS가 현재 투명성 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대로 투명성 없는 공정은 없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이 없는 좋은 공영방송도 없다고 주장해 온 그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대길 회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경영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이른바 수신료와 광고가 혼재되어서 쓰이고 있는 가운데 공통비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를 분리회계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반론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에 각 채널별로 공통되는 비용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3년치를 놓고서 평균을 내서 KBS의 재원구성에서 수신료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평균치를 내보면 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던데 이 점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이사회 이사 분들께서 제안한 회계분리 제안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통

적으로 들어간 예산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안분하는 그러한 방식이고, 그것이 현재 KT나 이런 부분에서 사후적으로 그러한 비율을 배분하고 그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논의하면서 사전적으로는 사실상 기자나 PD 제작인력이 1TV 제작만 하고 2TV 제작만 하고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인력과 리소스, 여러 장비들의 비효율성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사후적 배분에 방금 말씀하신 소수 이사 분들의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사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잘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관건이고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KBS가 스스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회계분리는 다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BBC도 회계 분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희자산 이야기가 나와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유희자산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들 구조조정 내지는 경영합리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자산을 팔아서 재무환경을 건전화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워지면 핵심자산을 팔면서 경영합리화를 꾀하는데, 물론 KBS가 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까 재개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큰 안목에서 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것이 꼭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KBS가 스스로 외부기관에 맡겨서 진단해서 좀 더 합리화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경영합리화나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타당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KBS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여쭙 보겠습니다.

○ 김환영 KBS 사장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시도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5, 6년, 7, 8년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메리트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단순한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은 근본적인 공영방송의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이 지은 지 벌써 38년 되는 것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사무공간으로 하는 큰 계획,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도 유희자산이든 기반시설이든 사장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EBS나 연합뉴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사옥 지원을 해 왔던 것처럼 현재 유희자산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에, 또는 UHD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사옥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정부와 KBS가 같이 있어야 한다, 현재 기반시설 중에 일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달랑 매각하면 나중에 신사옥 신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KBS와 정부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일의 후차순위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장께서 아까 홍성규 위원께서 철학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법을 읊었습니다. 국민화합, 그다음에 국민 정서함양 이 2개가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국민화합과 국민 정서함양이 하나는 보도의 영역이고 하나는 드라마와 오락, 교양 영역이고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아까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짚짚 나열했는데 여전히 KBS가 끊임없이 시달리는 영역은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여론의 한 축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분이 지금 공영방송 철학에 맞는 우위적 실증양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경영적 행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불공정 보도에 대한 부분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KBS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시각의 문제라고 돌려버리면 결국은 KBS 수신료는 외부의 시선들이 KBS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수신료 인상의 폭 자체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신료 인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공적책무의 가장 1차적인 부분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도적 마련을 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문합니다. 두 번째, 광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입장으로 저는 얼버무리면 안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광고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에 극단적으로 대척적으로 위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 그래서 외압이든 자체든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KBS가 당장 국민들에게 10,000원의 수신료 부담을 안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최소화된 상황에서 KBS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후 미래를 대비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광고 문제를 봐야지, 광고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문제만 보고 긍정적인 요소마저도 배제하면서 광고를 통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대대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화합의 여러 영역의 작은 줄기들이 있겠지만 그 줄기 중의 하나는 국민이 KBS로 인해서 받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KBS는 그 최소화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언제부터 KBS가 스스로 광고를 빼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십수 년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고 그리고 30여년 KBS가 그 이전에 광고를 스스로 줄이겠다고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저는 최근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한 문제를 불온시하지 말 것, 그다음에 오염의 덩어리라고 보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간단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보지요. 작년에 상당히 긴축재정, 비상경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방송제작비 집행률이라고 할까요, 제작비도 작년에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제작비는 한 5% 정도 삭감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수신료가 인상이 되면 역시 고강도의 긴축재정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야겠지만 제작비를 줄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 **길환영 KBS 사장**

-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장께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길환영 KBS 사장**

-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00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 부분만큼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른 여타의 경비는 줄이더라도 결국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복지를 우리가 서비스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작 예산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경비는 절감하되, 제작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런 부분은 더욱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한두 차례씩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수신료 또는 광고에 대한 철학이 매우 다릅니다. 하여튼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공영이라는 말 자체가 MBC도 공영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르지요. 소유가 국가 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공영이지, 거기는 광고로 운영하는 방송,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KBS가 애당초부터 국영방송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방송을 국가에서 운영하면 일방적인 홍보가 된다, 그러니까 균형감과 공정하고 공영성을 지키려면 이것을 별도의 공사로 만들어서 수신료로 운영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든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신료로 운영하라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2%가 수신료로 운영되고, 나머지 광고는 없고 다른 수익, 콘텐츠 등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아까

홍성규 위원께서 프랑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50:50 정도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85%가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NHK는 97%가 수신료로 운영됩니다. 왜 수신료로 운영되느냐? 아까 모두의 발언이 바로 공영성을 강화하는 데는 광고로 하는 것보다는 수신료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국제적인 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오늘 돌아가신 박권상 前 KBS 사장님께서 그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신료로 많이 운영되어 왔는데 중간에 수신료가 오르지 않고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2007년에 정연주 사장 시절에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지요. 그때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시가 되어서 국회까지 갔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는데 4,000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KBS 측에서 정연주 사장이 이유 중의 하나가 “KBS2가 사실은 광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방송보다도 공영성이 떨어진다.” 그 때는 ‘저질방송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 표현을 제가 한 번 썼더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때 KBS 자체에서 또는 다른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광고는 과감하게 줄이고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제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막장드라마니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가족관계에 나쁜 정서적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품위 있는 그리고 광고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경쟁하지 않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철학과 이것이 기본적으로 출범할 때부터 정신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를 높여서 끝내는 수신료로만 운영되는 방송으로 된다,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한다는 것이지, 광고료 2,000억원이면 2,000억원을 축소해서 다른 방송에 주기 위해 수신료를 올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거꾸로 된 논리입니다. 나중에 안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방송 쪽에서 아마 광고물량을 전반적으로 광고가 어려운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시장에서 광고가 없으니까 아마 그것이라도 다른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정도이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가 거꾸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사장께서 아까 2019년에 광고가 없는 방송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이 5년 동안 그냥 첫 번째만 2,000억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1,000억원 좀 더 줄이고 또 나중에는 없앤다, 이런 로드맵을 정해 주어야지, 그냥 이대로만 보면 사장님 말씀이 바로 제출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환영 KBS 사장

- 지금 저희가 제출한 수신료 현실화(안)는 아시는 대로 2014년~2018년까지 5년간의 중기계획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계속 말씀 드렸지만 완전공영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수신료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뭔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수신료가 다시 재책정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합의기구, 수신료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2019년에 완전공영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 한 2년 전쯤 그때는 뭔가 가시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든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든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인건비 관계는 줄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혁신이라고 하면 다른 공공기관의 혁신, 이것은 바로 주로 타깃이 과거의 노사관계가 누적되어서 이것이 엄청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이것 바로 잡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KBS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KBS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미 국회에서 5년 전에 이것을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뭐냐 하면 KBS가 다른 방송보다 평균임금이 훨씬 낮았고 1억원 이상 다른 데보다는 비율이 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동정론이 가는데 또 제작자들이 숙련된 노하우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고임금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KBS 내에 실제 제작과 상관없이 1억원 이상 고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통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젊은 창의력 있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노련한 노하우가 있지만 또 창의성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 줄이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 오히려 고임금, 별로 역할을 못 하는 분 한 사람이면 오히려 2명 또는 3명까지도 새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조적인 한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제가 5년 전에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KBS의 인력구조는 역피라미드다.”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진짜 역피라미드입니다. 밑에는 없고 위에만 높습니다. 그것이 약간 거꾸로 된 피라미드인데 조금 좁아진 피라미드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저도 인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리고 아까 EBS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EBS야말로 정말 100% 공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과외비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3%, 2.8%만 가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1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EBS 재정구조의 5~6%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5% 올려주겠다면 기본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됐고, 또 거기에 5% 하니까 절대액수로는 500~600억원씩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2%쯤 더 올려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역할을 바로 볼 수 있는 데가 EBS이기 때문에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환영 KBS 사장**

-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단순한 퍼센티지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에서 5%로 늘린 것은 나름대로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EBS의 광고수입이 350억원 정도 되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했을 때 한 5%

로 올리면 대부분 그 정도가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목한 것은 EBS의 재무구조 자체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저희는 부채비율이 한 19% 정도 되는데 EBS는 굉장히 저희보다도 낮고, 지금 공개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 5% 정도 확대하면 상당 부분 그런 취지에 이것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실무자들에게 맡겨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KBS 측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들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KBS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동의여부만 결정하지 우리 자체가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KBS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국민적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사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기타사항으로 의견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와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한국방송공사 의견진술인 퇴장)

7. 폐 회

○ 이경제 위원장

- 이상으로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15분 폐회 】